

**「 해수욕장은
우리 모두의 공공자원이다 」**

문 현 신 의원

送厄迎福 (송액영복)

액을 보내고 복을 맞아들인다.



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된 해양레저 계류장이 파손되고 방치돼 있는 모습. 강선배
기자 ksun@











